

수원시청, 설날씨름장사전서 ‘빈손’

문형석, 금강급 준우승에 그쳐
장사 미배출, 2009년 후 4번째

‘씨름 명가’ 수원시청 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한 명의 장사를 배출하지 못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2009년 기준으로 수원시청이 설날장사씨름 대회에서 장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2014년, 2015년, 2018년에 이어 4번째다.

수원시청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전남 영암군 영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문형석은 금강급(90kg급) 결승에서 최정만(전남 영암군민속씨름단)에게 2-3으로 석패해 2위에 입상했고 같은 급에 출전한 임태혁은 8강에서 떨어졌다.

또 태백급(80kg급)에서는 문준석이 3위에 올랐고 한라급(105kg급) 이효진과 백두급(140kg급) 김보현은 모두 8강에서 쓴맛을 봤다.

이번 시즌 수원시청 소속으로 첫 대회를 치른 ‘씨름돌’ 허선행은 태백급 8강 1조 경기에서 김덕일(울주군청)에게 1-2로 패배하며 조기 탈락했다.

수원시청은 지난해 많은 장사를 배출했다. ‘민속씨름 경량급 간판’ 문준석은 2022 설



수원시청 씨름단 임태혁.

수원시 제공

날장사씨름대회에서 태백장사에 오른 뒤 3월 열린 민속씨름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 통산 7번째 태백장사에 올랐다.

김기수는 8월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와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남일반 용사급(95kg급)에서 정상에 섰다.

또한 문형석은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 타이틀을 획득했고 임태혁은 설날 장사씨름대회 금강급 정상을 차지했으며 정

창조는 7월 2022 민속씨름 평창평화장사씨름 대회 백두장사에 등극했다.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장사를 배출한 수원시청이 이번 설날씨름장사전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종엽 수원시청 씨름 감독은 이에 대해 “아직 2023년 첫 대회를 치렀을 뿐”이라며 “선수들의 부상을 최소화 하며 착실하게 앞으로의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올해 창단한 MG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다른 팀들의 기량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면서 “아무래도 첫 대회인 만큼 선수들이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한 것 같다. 금방 부담감을 털어내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특히 “허선행이 팀에 합류한 뒤 첫 대회라 그런지 부담이 컸다”며 “많은 관심을 받은 허선행이 이번 대회에서 본인의 기량을 전부 발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팀에 적응하고 금방 제 실력을 뽐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수원시청 씨름단에 대한 우려 또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좋은 성적으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유창현 기자

‘지메시’ 지소연, 아널드 클라크컵 출격한다

콜린 벨 감독, 대회 소집 명단 발표
수원FC위민 추효주, 김윤지도 발탁

여자축구 수원FC위민의 ‘지메시’ 지소연이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해 첫 경기에 출격한다.

여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26명의 2월 소집 명단을 발표하고 계획 등을 밝혔다.

대표팀 명단에는 한국 여자축구의 간판스타 지소연과 수원FC위민의 수비수 추효주, 미드필더 김윤지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골키퍼 김정미(인천 현대제철), 윤영글(무소속), 김경희(창녕WFC), 류지수(서울시청)가 선발됐고 수비수는 심서연(서울시청), 홍혜지, 임선주, 김혜리, 장슬기(이상 현대제철), 김혜영(경주 한수원)이 뽑혔다.

미드필더는 장창(현대제철), 천가람(울산과 학대), 배예빈(포항여고), 이금민, 박예은(이상 브라이턴), 공격수는 이은영(고려대), 이정민(보은 상무), 최유리, 강채민, 손화연(이상 현대제철), 박은선, 장유빈(이상 서울시청), 고민정(창녕WFC)이 선택 받았다.



지난해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 BMO 필드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평가전에서 지소연(수원FC위민)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오는 30일부터 울산광역시에서 새해 첫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여자 대표팀은 다음달 10일 출국해 잉글랜드에서 열리는 아널드 클라크컵에 참가한다.

한국은 2월 16일 잉글랜드, 2월 19일 벨기에, 2월 22일 이탈리아와 차례로 맞붙는다. 경기는 각각 잉글랜드 밀턴킨스, 코벤트리, 브리스틀에서 열린다.

벨 감독은 “아널드 클라크컵은 유럽 스타일에 적응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독일, 그리고 이후 만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유럽 팀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은 대부분 프리 시즌 기간이지만, 아널드 클라크컵에 출전할 다른 팀의 선수들은 시즌 중이라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만 들어나가는 시간이 중요하다. 울산에서부터 잘 체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창현 기자

올해 2023 경기도체육대회부터 산악·댄스스포츠 종목 선보인다

도민체전, 올해 총 27종목 진행
생활체육대축전, 수영 추가 편성

올해 진행되는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시범 종목이 추가됐다. 경기도체육회는 2023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각각 2개와 1개 종목이 시범 종목으로 추가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민체전에는 산악과 댄스스포츠 종목이 새롭게 편성됐고 생활체육대축전에는 수영 종목이 추가됐다.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인 산악은 스포츠클라이밍 난이도와 속도(스피드), 볼타링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건물 벽면에 거대한 합판 등의 구조물에 인공 홀드를 설치해 놓고 장비의 도움 없이 손과 발만을 이용해 벽면을 따라 이동하는 스포츠다.

산악은 2016년 8월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승인 받았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처음 진행된 바 있다.

2명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펼치는 댄스스포츠는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친목과 사교가 목적이 아닌 스포츠로서 경기를 하기 위한 종목이다.

지난 제103회 전국체전에서는 라틴 3종목, 라틴 5종목, 스탠다드 3종목, 스탠다드 5종목 등 4개의 세부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2명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펼치며 라틴 3종목은 삼바, 차차차, 룸바다. 라틴 5종목은 이 중 자이브와 파소도블레가 추가된 종목이다.

스탠다드 3종목은 왈츠, 탱고, 퀵스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비엔나 왈츠, 슬로우 폭스트롯을 더한 종목이 스탠다드 5종이다.

이로써 기존에 25종목이었던 도민체전은 기존에 육상, 수영, 유도 등을 포함해 총 27종목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남자 일반부만 진행됐던 유도와 골프, 보디빌딩은 이번 대회부터 여일부가 편입되어 시범 운영된다.

생활체육대축전은 수영 종목이 포함되며 총 25종목으로 치러진다.

이번에 추가된 산악, 댄스스포츠, 수영은 2021년 경기도에 종목 추가 편성을 요청한 종목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갖고 올해부터 시범종목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됐다.

한편 도민체전은 오는 5월 경기 성남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고양시에서 열린다. 유창현 기자



26일 경기도체육회관 정문에 설치된 이동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한 도체육회 직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사진=유창현 기자

도체육회, 경기혈액원과 ‘사랑의 헌혈운동’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이 부족한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체육회는 26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헌혈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헌혈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도체육회관 정문에 설치된 이동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사랑의 헌혈운동’에는 도체육회 직원들과 도체육회관 내방객 등 총 20여 명이 동참했다.

도체육회는 매년 2회 이상 헌혈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사회 생생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혈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혈에 처음 참여한 도체육회 직원은 “나의 작은 실천이 혈액이 필요한 이웃과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직원과 내방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경기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창현 기자

“승격을 향한 행진”... K리그2, 3·1절부터 개막 레이스

프로축구연맹, 시즌 정규 일정 발표
13개 구단 참가, 팀당 36경기 진행
성남FC ‘이기형호’, 안산과 맞대결

2023시즌 프로축구 K리그2가 3·1절부터 레이스를 시작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2023시즌 K리그2 정규리그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시즌 K리그2에는 ‘신생팀’ 천안시티 FC와 충북청주FC가 합류해 총 13개 구단이 팀당 36경기를 치른다.

2023시즌 개막라운드 6경기는 모두 3·1절에 열리며 오후 1시30분과 오후 4시에 각각 3경기씩 치른다.

이기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성남FC는 3월 1일 오후 4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임종현 감독 체제로 새 시즌을 준비한 안산 그리너스FC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르며 안산의 홈 개막전은 3월 4일 충남아산FC와의 맞대

K LEAGUE 2 2023 FIXTURES OPENING WEEK						
Wed	3/1	13:30	창원FC vs 서울FC		경남 vs 부천	
Wed	3/1	13:30	전남FC vs 고양FC		전안 vs 부산	
Wed	3/1	13:30	광양FC vs 울산FC		전남 vs 안양	
Wed	3/1	16:00	탄천종합운동장		성남 vs 안산	
Wed	3/1	16:00	이수신종합운동장		충남아산 vs 리전	
Wed	3/1	16:00	목동종합운동장		서포드 vs 충북청주	

2023시즌 프로축구 K리그2 개막 라운드 일정.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결로 정해졌다.

부천FC1995는 지난해 준플레이오프에서 격돌했던 경남FC와 3월1일 오후 1시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만난다.

부천의 홈 개막전은 3월 4일 성남과의 대결

로 결정됐다.

3월 1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전남 드래곤즈를 상대하는 FC안양은 3월 5일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이밖에 김포FC는 3월 5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천안와의 리그 첫 대결을 홈 개막전으로 치르게 됐다.

한편 월요일 저녁에 열리는 ‘먼데이 나이트 풋볼’은 이번 시즌에도 계속된다.

각 팀당 1회씩 모두 13회 개최되는 ‘먼데이 나이트 풋볼’은 7월 3일 안양과 성남의 맞대결로 시작된다.

39라운드의 정규리그 이후엔 1부 승격의 관문인 플레이오프가 이어진다.

K리그2 4위와 5위 간 준플레이오프는 11월 29일, 3위와 준플레이오프 승리팀간 플레이오프는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홈&아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승강 플레이오프는 12월 6일과 9일에 개최된다.

유창현 기자

수원FC, 2023시즌 연간 멤버십 회원 모집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2023시즌 연간 멤버십 회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원FC는 “2023시즌 멤버십은 26일부터 인터넷과 티켓을 통해 연간 멤버십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간 멤버십 회원은 2023시즌 전 경기 무료 입장과 예매 수수료 1000원 면제, 멤버십 카드 제시시 팬샵 MD 10%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자축구 수원FC위민 홈경기 1000원 관람 혜택도 주어진다.

2023시즌 연간 멤버십은 프리미엄석과 레드존(W석), 일반석 등 좌석별로 혜택이 다르다.

프리미엄석 멤버십 구매자는 선착순 150명

한정으로 연간 지정좌석을 배정하며 사전 예매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테이블석과 비테이블석으로 구분한다. 비테이블석의 경우에는 간이테이블이 제공되며 PK티셔츠, 다화용 우비, 멤버십 골드카드 등 멤버십 패키지 박스를 제공한다.

레드존 멤버십 구매자들에게는 다화용 우비와 멤버십 카드가 주어지고 일반석 멤버십 구매자에게는 멤버십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구단은 2월 20일까지 연간 멤버십을 구매한 팬들에게는 우편 배송으로 전달한다. 이후에 구매하면 경기 당일 현장에서 수령하면 된다.

유창현 기자